



Hong Kong

홍콩지사

전염병 공포가 부른 Panic buying

앞선 데 덮친 홍콩 경제의 우환

작년 6월부터 시작한 시위로 반중(反中) 정서가 짙어진 홍콩은 이른바 큰 손인 중국인 관광객 감소가 본격화 되었다. 결국 홍콩 GDP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관광과 유통산업이 크게 흔들리면서 2019년 홍콩 경제는 15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중국 본토에서 찾아든 관광객은 주로 인삼, 명품 등 고가의 제품을 주로 소비하며, 타 국가 관광객 1인당 일평균 소비액보다 4배 많은 HKD 7,029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홍콩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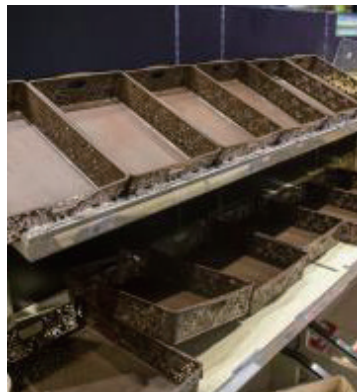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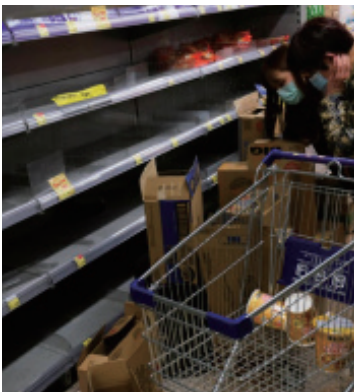
게다가 올해 2월부터 바이러스 전파 우려로 본토와의 국경 검문소 대부분을 폐쇄한 데 이어 홍콩 내 바이러스 확산으로 타 국가와의 하늘 길까지 막히면서 관광과 유통산업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주요 관광지의 상점들은 근로자를 해고하고 임시 휴업, 영업시간 단축, 폐업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한 전자상거래 업체의 대표는 “시위가 끝나면 정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지만, 바이러스가 왔다”며 “홍콩 유통업계에 이미 변화가 발생했으며, 많은 기업들이 폐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조사통계국(C&SD)은 2020년 1월 소매업은 전년 동월 대비 21.4% 감소한 378억 HKD(약 5조 9천억 원)라고 발표했다.

다. 이는 지난해 12월 19.4%보다 큰 감소폭으로 1월 춘절 특수를 기대했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본격화되자 학교, 사무실, 식당, 쇼핑몰 등이 문을 닫았고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소비 심리 위축이 가속화 되어 2월 홍콩 경제지수 등 재정적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Panic buying, 슈퍼마켓 매출 증가

20% 이상의 소매업 감소에도 불구하고 슈퍼마켓 매출은 10.2% 증가했다. 본토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폐쇄 조치가 제품 공급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한 홍콩 소비자들이 쌀, 채소류, 육류, 물 등 필수 식료품과 비교적 장기 보관이 용이한 라면, 냉동식품, 캔류 등을 비축해놓기 위해 사재기했기 때문이다. 일부 매장에서는 1인당 판매량을 제한하기도 했으며, 생필품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칼을 든 무장 강도가 파스타, 쌀, 휴지 등을 훔쳐 달아나다가 검거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의 생필품 안정공급 발표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슈퍼마켓에 몰려든 소비자들로 한바탕 전쟁을 치렀다.

| 제품이 동나 텅 빈 식품매장과 사재기 자제 호소문 |



Panic buying의 원인

Panic buying은 두 가지 원인으로 분석된다. 하나는 2003년 경험한 사스(SARS) 공포다. 높은 치사율 때문에 홍콩에서만 299명이 사망했던 당시의 분위기를 경험한 홍콩인들의 두려움이 첫 번째 원인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최근 한 대학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홍콩 성인 3분의 1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지난 몇 달의 사회 불안과 전염병에 대한 불안으로 인한 것이라 전했다.

다른 하나는 높은 식품 수입 의존도이다. 홍콩은 자체 농식품 생산량이 거의 없어 농업 분야 개방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자국 농식품 수요의 약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 중 본토 수입 의존도가 가장 높은데, 전체 농식품 수입량의 27.6%, 수입액의 21.6% 규모로 물, 채소류, 과실류, 축산물, 수산물 등 대부분 필수 식료품이다.

| 수입량 기준 (단위:천 톤) |

전체		2017	2018	2019
		27,639	28,911	27,075
1	중국	6,028	6,243	5,890
2	미국	4,391	4,292	3,382
3	브라질	2,261	2,534	2,070
⋮	⋮	⋮	⋮	⋮
16	한국	366	402	356

| 수입액 기준 (단위:백만 불) |

전체		2017	2018	2019
		9,029	8,791	8,563
1	중국	2,383	2,396	2,362
2	미국	1,301	1,173	965
3	태국	844	780	863
⋮	⋮	⋮	⋮	⋮
11	한국	151	139	136

Key Point

가격경쟁력과 실속 갖춘
제품 기획 필요

한국 농수산식품의 對홍콩 2월 수출실적은 Panic buying으로 라면, 김치 등 필수 식료품 분야는 증가한 반면,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삼류, 주류 등 고가품, 기호품 분야는 감소할 전망이다. 당분간 홍콩 시장은 경기 침체로 가격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확대되고, 바이러스·시위 등으로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행사 또한 연기·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홍콩에 진출하려는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갖춘 실속형 제품을 기획하고,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사스(SARS) 이후 최대 위기, 경제 회복은 오는 4분기 이후 기대

홍콩 경제는 시위로 이미 큰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바이러스까지 확산되면서 사실상 마비 상태다. 이번 코로나의 영향은 2003년 사스(SARS) 당시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스(SARS) 이후 홍콩 경제는 본토인들의 관광이 늘면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됐지만, 지금은 본토의 경기 침체와 홍콩의 반중 정서가 높아져 이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의 감세·보조금 지급, 대형 쇼핑몰들의 임대료 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 위축은 심각한 상태다. 또한 올해 9월까지 홍콩 시위가 예고되어 있어 단기간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